

꿈을 나르는 배

Dreams@Logodi 2011 | 12

vol.09

Realize your dreams **With LOGODI**

지방행정연수원과 함께할 때,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세 계 는 지 식 공 유 의 시 대 로 나 아 가 고 있 습 니 다

15세기 독일의 한 청년이 금을 채취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금 채취량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다가 인쇄기를 발명하게 된 청년은 훗날 그 인쇄기로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약 450권의 성경을 출판했는데, 이는 그 당시 수도사가 손으로 만들 경우, 무려 90년이나 걸렸을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수의 기득권층이 점유하던 지식을 서민들도 책을 통해 알게 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인쇄기 발명을 통해 지식을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구텐베르크는 자신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가속화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처럼, 현대인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창시자들은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미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방에서 하버드나 MIT 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우리나라 대학들도 독자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TED.com과 같은 사이트는 기술, 디자인, 오락,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무료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교육 콘텐츠 제공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집합 교육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교육훈련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까요? 《꿈을 나르는 배》 이번 호에서 ‘지식 공유와 소셜 러닝’을 Special Theme으로 다루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HRD 전문가, SNOW, HOWL, TEDxSeoul 관계자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께도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2011년 한해를 정리하고 2012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장(場)으로서, 시대를 읽는 생생한 교육을 통해 최고의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이라는 명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열정과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Special Theme 지식 공유 & 소셜 러닝

- 06 소셜 러닝, 집단 지성에 기대를 걸다
- 10 오픈 지식 공유 플랫폼, SNOW
Sookmyung Network for Open World
- 12 지식 공유를 통한 행복한 지식 생태계
HOWL
Hanyang Open World for Learning
- 14 창의성의 시대를 이끄는
지식 공유 혁명, TED
- 16 왕복 420분이 아깝지 않은 '18분'의 힘
- '값'을 주제로 한 TEDx 세종대학교 강연회

LOGODI & People

- 20 HRD 칼럼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
누가 관리할 것인가?
- 22 책 속 강의실
명품 국민을 만드는 '매너'의 힘
- 24 ISSUE
전북혁신도시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 지방행정연수원 신청사 착공식
- 26 현장 스케치
지방의회 발전의 견인차
2011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 28 꿈이 있는 사람들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
25년만의 터닝 포인트
- 30 Be smart, Be better
변화하는 교육, 흔들림 없는 뿌리를 찾다 /
보상 업무를 통해 얻은 특별한 가르침
- 32 Zoom-in, 이 과정이 궁금해요
인문학으로 돌아가다
-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과정 &
역사 바로알기과정
- 34 다시 현장 속으로!
장기과정연수, 한 해를 돌아보며
- 38 스타팅 라인
한국의 경험에서 탄자니아의 미래를 보다

LOGODI & Culture

- 42 성공학개론
정년 후의 80,000 시간
- 44 생각잇보기
"재테크,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연수생 대상 재테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46 행복을 만드는 작은 기적
선물 같은 인연, 내겐 너무 소중한...
- 48 우리말 바꾸기
공문서 작성, '소통'에 답이 있다
-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 50 타임머신 타고 역사 속으로
고구려와 발해, 그 유서 깊은 땅에 서다
- 52 꿈꾸는 도서관
올해 가장 사랑받은 3대 도서
- 53 Statistics
2011년 교육운영 성과
- 54 편집후기
꿈을 나르는 배, 닳을 내리며

Dreams@Logodi

Dreams@Logodi는 원내 직원 공모에 의하여 선정(이승희, 김진설) 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꿈을 전달하는 지방행정연수원(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LOGODI)의 모습을 감성적 문장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인 이메일 형식을 빌어 표현한 것입니다.

발행일 2011년 12월 | 발행인 김종해
발행처 지방행정연수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편집위원 노병찬(기획지원부장), 서주현(기획협력과장)
기획총괄 장문호(기획협력과)
기획·취재·사진 윤정민(gemini0507@korea.kr)
디자인·인쇄 비컴(beecom) 02 543 6133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요즘처럼 실감할 때가 없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등장한 인터넷과 고작 몇 년 전에 탄생한 소셜이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1:다수, 혹은 다수:1의 소통이 완전히 자유롭고, 개인의 한계를 집단지성으로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지식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식과 사람을 이어주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명, 지식 공유와 소셜 러닝의 신세계를 탐험해보자.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식 생태계

지식 공유 소셜 러닝

글 이찬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 교수

소셜 러닝, 집단 지성에 기대를 걸다

최근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활성화되면서 이들을 활용한 이른바 소셜 러닝(Social Learning)이 기업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소셜 러닝은 세 사람 이상의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배움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소셜 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셜 러닝, 르네상스를 맞이하다

오늘날까지 기술을 이용한 상호작용이라 함은, 전화나 이메일과 같은 1:1의 내로캐스트(Narrowcast), 이메일 뉴스레터와 같은 1:소규모 집단의 니치캐스트(Niche-cast), 그리고 대규모의 온라인 잡지나 라디오 쇼와 같은 1:다수의 브로드캐스트(Broadcast)가 전부였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매체를 활용하여 세 명 이상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셜 미디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뉴 소셜 러닝(New Social Learning)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지식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 방식으로 진화하며 소셜 러닝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결국, 소셜 러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학습 행위이다. 컨퍼런스나 온라인 내 집단 활동 등을 통해 오랜 친구들이나 만난 적이 없는 온라인 동료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학습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셜 러닝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결국 소셜 러닝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함께 한다'라는 점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일부 핵심인재에만 의존하던 업무 패턴에서 벗어나, 이제는 TFT(Task Force Team) 중심의 업무 패턴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등장한 소셜 미디어는 여느 기술보다도 일터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므로, 소셜 러닝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셜 러닝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 커뮤니티에서 찾다

사실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전통적인 집체 연수교육도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정보들을 상시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따른 업무 공백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셜 러닝이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직 문화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 내부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러한 조직 문화 구축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속감과 책임, 그리고 관계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자, 직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금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인 ASTD에서도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소셜 러닝에 대한 일본 기업 히타치의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히타치 사의 네트워크 서버 이름은 '코모레비(Komorebi)'이다. 코모레비는 일본어로 '나뭇잎 사이로 비추어 들어오는 햇살'이라는 뜻이다. 조직 안에서 임직원들 간의 아이디어를 발산시키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쏟아져나오는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사업화 시켜 보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코모레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찬

누구나 접속은 가능하지만 실명제로 운영했고, 또한 게시물에 대하여 별도로 내용상의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100%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히타치 사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전 임직원 대비 약 18% 정도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커뮤니티를 활용해야만 그것이 비로소 조직 내에서 소셜 러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140자의 커뮤니케이션 혁명, 마이크로셰어링(Microsharing)

이 외에 소셜 러닝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두 되고 있는 ‘마이크로셰어링(Microsharing)’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소셜 러닝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크로셰어링이란 일종의 소셜 소프트웨어로서, 모바일 기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짧은 메시지나 링크,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메시지는 보통 140자를 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보통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수가 160자인데, 이 중에서 140자가 메시지에 할당되고, 나머지 20자는 정보의 소스를 식별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140자 한도 내에서 이용자는 질문을 올리거나, 질문에 답하거나, 뉴스를 접하거나, 인터넷의 링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셰어링 수단 가운데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트위터(Twitter)이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40개의 문자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에서 마이크로셰어링이 담당해야 할 기능들이 생겨났고, 비형식적인 형태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집단지성으로 따라잡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왔는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셜 러닝의 1차적인 결과물(Output)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정의될 수 있다. 조직이나 팀의 성공은 어려운 문제나 도전을 받았을 때 서로가 얼마나 잘 협력하여 일을 수행하는지, 또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통합하며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집단 지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아버지라 불리며, 반세기에 걸쳐 협력도구의 창조를 옹호했던 더그 엔젤바르트(Doug Engelbart) 역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잡다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연관된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 내 사람들이 신속하게 조직의 집단지성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상의 해결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긴급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인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혼자 대처하고 이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조직 환경은 우리가 왜 집단 지성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직이 집단 지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모델(Smart Enterprise Model)’, 즉, ‘스마트 기업’이다. 스마트 기업에서는 임직원들의 지식 공유를 통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전략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강한 ‘우리’의 힘, 소셜 러닝에 있다

이제 소셜 러닝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대한민국 청와대(@bluehousekorea)는 물론이거니와 각 정부부처 및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그들만의 정책 홍보 및 정보 채널을 내·외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의 경우도 일찍이 트위터(@happylogodi)와 페이스북(/logodi)을 통해 내부 임직원들 및 외부 고객들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무원 교육기관이라는 미션을 살려, 지금보다 한층 더 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피드백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교육의 기획 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 활용한다면, 단순한 홍보나 알림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소셜 러닝이 아닌, 상호간의 쌍방향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새로운 지식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 역시 질문, 제안, 질의, 민원 등을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연수원으로부터 신속한 회신을 제공받음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방행정연수원과의 신뢰 관계도 더욱 공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소셜 러닝은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 보다 강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모쪼록 소셜 러닝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조직 모두가 집단지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



* 본 원고는 Bingham, Tony .. & Conner, Marcia, (2011). 소셜 러닝 (이찬 역). 서울: 크레듀(원저 2010 출판) 본문의 내용을 요약·재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이기석 숙명여대 지식정보처장 / 수학과 교수

오픈 지식 공유 플랫폼, SNOW Sookmyung Network for Open World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에 대해 질문을 한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답변한다.
물론 나는
하버드대 학생은 아니다.
하지만 수업 현장을
생생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어떻게? 간단하다.
SNOW(snow.or.kr)에 접속하면
수천 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하버드 대학의 인기 강좌를
무료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좋은 세상이다.



나누는 지식, 커가는 희망 _ SNOW

2008년 한영실 총장 취임 후 숙명여대는 ‘대학교육의 내실화’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문제와 ‘대학의 사회적 책무 실천’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 지식교육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세계 석학의 지식 동영상을 한글로 공유할 수 있는 오픈 지식 공유 플랫폼 SNOW 2.0을 개발하게 되었다. 즉, Web 2.0 시대의 새로운 교수-학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대학의 새로운 교육 역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대학이 공유하는 고급 콘텐츠를 숙명여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여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른바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SNOW를 제공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식 나눔 및 공유의 시작 _ MIT OCW(Open Course Ware)

새삼스럽지만 IT와 인터넷의 발달은 정말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발달만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지식 나눔의 철학이 없었다면 진실보한 교육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의 많은 대학과 기관들이 인터넷의 발달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고급 콘텐츠를 이용한 수익모델을 고민할 즈음, 미국 MIT 대학은 2002년 대학이 보유한 일부 강의 자료를 MIT 재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했다. 이는 세계 명문 대학이 강의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혁신적이며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기석



사용자가 참여하는 양방향 오픈 지식 공유 시스템

지식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국외는 물론 국내에도 여럿 있다. 그럼에도 SNOW가 특히 주목 받는 이유는 일반인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양방향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SNOW에서는 누구나 지식 콘텐츠를 공유하고, 외국 동영상을 번역하며, 동영상 주제별로 토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다수의 학생 및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스스로 발전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Web 2.0 시대 도래와 함께 개방·공유·참여의 흐름에 맞추어 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함으로써 지식의 양과 범위를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지식 생태계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참여하는 양방향 오픈 시스템의 장점은 짧은 기간 안에 SNOW가 보여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알 수 있다. SNOW 오픈 초기에는 시청 가능한 동영상 수가 천여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과 22개월 만에 동영상 수는 7,372개로 늘어났으며, 그 중 약 1,110개의 동영상은 우리 대학 학생들과 일반 사용자에게 의해서 강의 전체가 한글화되었다. 일반 사용자의 참여 없이 소수 SNOW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지식 나눔 활동

SNOW에서는 자발적 참여자의 활동이 학습뿐 아니라 나눔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SNOW 사이트에서 지식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한글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는 등의 지식 공유 활동은 SNOW 나눔 점수로 환산되어 실제로 여성, 테크놀로지, 교육 등의 분야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대학 최초로 지식 학습을 사회 공헌으로까지 확대한 사례로, 개방·공유·참여 시대에 새로운 지성기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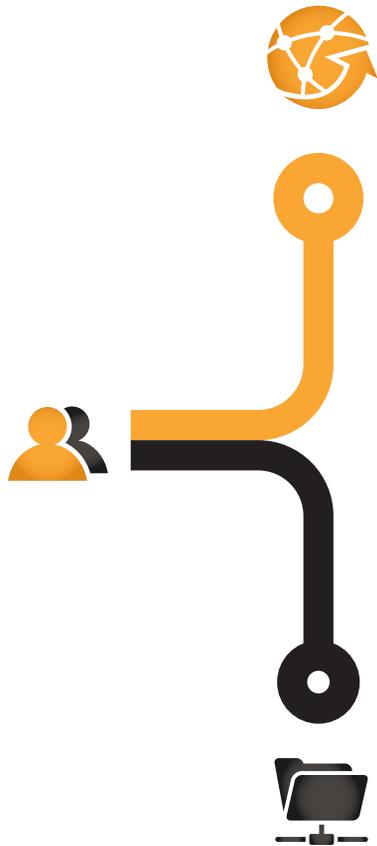
첫 번째 SNOW 나눔 사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 안양 성문고등학교에 노트북을 기증하여 재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의 지식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었다. 두 번째 SNOW 나눔 사업에서는 경상남도 남해 섬에 위치한 200명 규모의 창선고등학교에, 하드웨어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SNOW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처럼 일반 사용자들의 SNOW에서의 학습 활동, 지식 나눔 활동은 실제 사회봉사로 이어진다. 즉, 자신의 학습, 지식 나눔으로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식 나눔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SNOW

SNOW는 단순히 지식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 수준을 넘어 지식 나눔 활동, 선진 교육-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하여 새로운 고급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SNOW는 국내 대학 최초로 결성된 'TEDx숙명'을 운영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TEDx숙명' 활동에서는 대학생들의 열정, 창의력, 무한 청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또한 SNOW는 지식 나눔 봉사자 그룹인 'SNOW 지식 리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식 리더들이 대학생들의 지식 나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SNOW 지식 리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습능력 향상뿐 아니라 영어 능력 향상을 실제 체험하고 있다.

사용자 모두가 SNOW를 통하여 지식을 쌓으면서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지식 나눔을 통하여 기부 활동의 주역이 되며, 아름다운 선진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 선구자가 되길 희망한다. 이것이 SNOW의 바람이다. ●

글. 김천지 한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임연구원



지식 공유를 통한 행복한 지식 생태계

HOWL Hanyang Open World for Learning

HOWL은 두 가지 사회문화적 맥락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

첫 번째 맥락은 바로 'Openness'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의 출판업계에만 돌풍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책을 통해 마이클 샌델 교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유튜브(Youtube)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OCW(Open Course Ware)를 통해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 OCW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대학에서 일부 교수들의 강의를 OCW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었는데, 외국 대학 교수의 강연으로 인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조금 슬픈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Idea Worth Spread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디어와 지식의 공유를 모토로 삼고 있는 TED 역시 빠르게 확산되어, 2010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국내 TEDx event가 전국에서 활성화되었다. EBS에서도 TED TALK를 방영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OCW와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의 관심은 더 커지게 되었다. 두 번째 맥락은 바로 'Social'이다. 'Social service'는 2009년 겨울부터 아이폰을 필두로 한국에 불어 닥친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시작되어, 이제는 서비스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와 유튜브, 슬라이드 쇼어, 플리커 등의 소셜 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의 콘텐츠 생산과 소비, 전파, 유통 구조를 바꿔놓았다. 이처럼 'Openness'와 'Social'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지식이 선순환적, 자생적으로 생성·공유·재창조·소멸되는 '지식 생태계'의 개념으로 탄생한 것이 지식 공유 오픈 플랫폼, HOWL이다.



김천지



HOWL PC버전 메인 화면 - www.howl.or.kr



HOWL 모바일 버전 메인 화면 - m.howl.or.kr

‘Openness’와 ‘Social’의 교차점에서 탄생한 지식 생태계

현재 HOWL에는 약 2,400여 개의 학습 콘텐츠가 있다. 학생들은 HOWL에 있는 콘텐츠 중에서 관심 있는 영역의 강의 동영상, 슬라이드, 이미지 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그 중 일부 학생들은 학습 커뮤니티(CoP)를 구성해 협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HOWL은 사이트를 통해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HOWL 지식 나눔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 포인트를 활용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지원, 지식 나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지식 공유 경계와 한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올 여름에는 이 포인트로 강원도 인제군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약 2회에 걸쳐 한양대학교 학생 40여 명이 민통선 인근 지역 초등학교 40여 명과 함께 2주 동안 지식나눔 활동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HOWL에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해 가서 초등학교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동시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생태학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양질의 학습자원과 이용자들의 자발적 공유

HOWL은 양질의 학습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내·외 콘텐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내에서는 교수들의 정규 강의를 OCW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고, 실제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정규 강의를 OCW로 개발되어 유튜브의 한양대학교 채널에 공개되어 있다. 한편, 교외 콘텐츠 개발은 ‘인문학 강좌’의 OCW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0년 가을부터 ‘생각이 차오르는 인문학 cafe’라는 테마로 사회 다방면의 저명인사를 모시고 한 학기 당 6~7회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사회공헌의 의미를 두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해 두었는데 매회 150~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강연 또한 OCW로 제작, 한양대학교 유튜브 채널과 HOWL에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HOWL의 콘텐츠들은 각각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확산되고,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공유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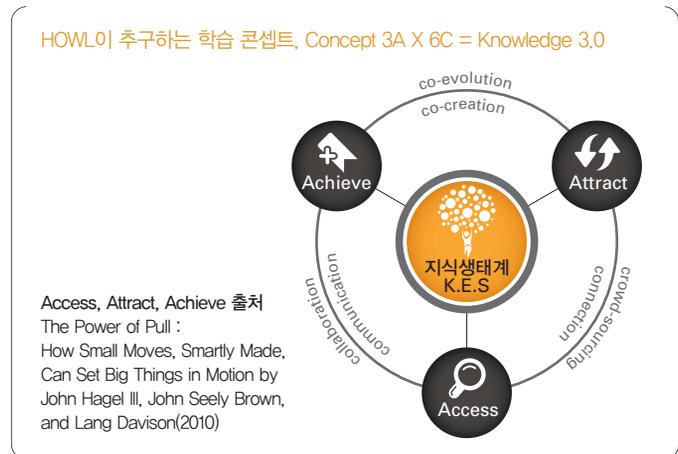
플랫폼의 가치는 콘텐츠가 결정한다

HOWL은 플랫폼이지만, 플랫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콘텐츠다. HOWL 뿐만 아니라 KOCW, SNOW 등 많은 지식 공유 플랫폼들이 있고, 지금도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러한 유사한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플랫폼은 copy가 가능할지라도, 콘텐츠는 copy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의 OCW를 떠올릴 때, 마이클

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가 먼저 떠오르지, 하버드 대학의 OCW 플랫폼에 있는 소셜 기능이나 디자인이 떠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지식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동식물들은 그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모여들게 되어 있다. 초식 동물에게는 황량한 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싱그러운 풀이 가득한 초원이 필요하다. 물고기에게는 1급수의 물이 흐르는 어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수초와 그 곳에 기생하는 미생물, 플랑크톤이 넉넉한 환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식공유 플랫폼도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그 플랫폼에 양질의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무심결에 지나치던 ‘온라인 행인’들도 자연스럽게 ‘온라인 학습자’가 된다. 이와 같은 생활 속의 무형식 학습은 지식공유 플랫폼과 양질의 콘텐츠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HOWL은 좋은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더불어 숲’

HOWL이 추구하는 학습 콘셉트는 ‘Concept 3A X 6C = Knowledge 3.0’이다.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Co-Creation’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만, Knowledge 3.0 시대의 핵심은 ‘협창성’, ‘Knowledge mash-up’이다. 지식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 및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때, HOWL이 추구하는 지식 생태계의 학습이 완성된다. Knowledge 3.0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Learning 3.0의 현실화,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지식 생태계의 실제적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HOWL의 비전이다. 삶(Living)과 일(Working)과 학습(Learning)이 더불어 발전하는 행복한 지식 생태계, 각 사람의 작은 지식들이 모여 지식 숲(林)을 이루고, 그 숲에서 다양한 생각과 아름다운 상상이 어우러져 울창한 지식 삼림(森林)으로 발전하게 되는 ‘더불어 숲’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





인류 역사상 아이디어, 창의성, 열정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것이 개인의 열정과 사명에 더해졌을 때 무시할 수 없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례들을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마치 신드롬과도 같은 열풍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식 네트워크 TED(테드) 컨퍼런스가 주목 받고 있다.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디자인(Design)의 머리글자를 모은 TED는 삶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의미 있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곳곳의 혁신가들이 무대에 서서 단 18분 안에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지식 컨퍼런스라 할 수 있다. TED는 하이테크·디자인·철학 등 영역을 가리지 않으며, 시대를 이끄는 이들이 평생의 열정이 담긴 탁월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자리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강연 영상을 무료로 개방해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TED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몇몇 사람들의 평가만 보아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 세계 지성의 향연. 지식 2.0
- 당신이 인생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것
- 18분의 매직.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 영어 공부? 궁극의 교재다
- 내 인생은 TED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몸이 먼저 느끼고 전율한다
- 3번 울고 10번 기립 박수를 쳤으며 100번의 감동 쇼크를 받았다
- 조직을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 숨 쉬게 만들고 싶은가? 이것이 답이다
- 이것은 차라리 종교다

Idea's Worth Spreading_ 공유 가치의 확산

TED의 사상은 열린 마음(Openness)과 호기심(Curiosity), 그리고 상대에 대한 너그러움과 관용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행동에 옮겨졌다. 바로 모든 지식의 전면적 개방(Radical Openness)을 기치로 강연 동영상상을 전부 공개하고, 자원봉사 번역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20년도 넘게 구축해온 브랜드를 말 그대로 '공짜로' 개방한 것은 대단히 큰 모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자원 번역의 경우 현재 무려 5천 명의 번역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8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다수의 자발적 봉사자에 의해 강연 하나하나가 번역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아직 번역되지 않은 불어 강연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풍이 일고 있다. 한 예로, 김서림 양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최다 번역자로 기여하고 있고 품질도 좋아 찬사를 받고 있다.

TED가 영향력을 갖는 진짜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TED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TEDx 이벤트 때문이다. TED의 정신인 '공유 가치 확산'을 계승하는 유사한 이벤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TED처럼 동영상상을 공유하고 지역 연사들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자"고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생긴 것이다. TED는 이에 TEDx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TED와 유사한 이벤트를 독자적으로 조직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결국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훌륭한 컨퍼런스 정도로 평가 받던 TED가,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된 자막과 세계 모든 주요 도시들에서 열리는 TEDx를 발판으로 단 3년 만에 폭발적인 관심과 전 지구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TED와 TEDx 이벤트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식 공유와 사람들의 연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지식 공유의 열망, TEDx

오늘날 전 세계에는 96개국에 걸쳐 2,200개가 넘는 이벤트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TEDx 중에는 TED를 능가하는 규모와 새로운 차원의 시도를 하는 곳들이 많다. 지역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TED 못지않게 뜨거운 곳도 많다. 한국에서 TED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이벤트는 바로 TEDxSeoul이다. 현재까지 4회의 정식 이벤트를 실시했고 지난 11월에 열린 이벤트에서는 350석의 좌석이 등록 개시 직후 90초 만에 마감되는 기염을 토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끝없는 논쟁과 반목을 거듭했던 한국의 부정적 대화 문화에서 '아이디어의 공유'라는 관점에서의 전환은 바로 우리가 찾던 돌파구였다. 마치 바이러스가 전파되듯 지식 공유에 관한 열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TEDxSeoul의 성공은 불과 2년 여 만에 80개가 넘는 한국산 TEDx이벤트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TEDxSamsung, TEDxNHN, TEDxKT 등 기업 이벤트로까지 번져나가며 지식과 열정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가 맞느냐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아이디어는 무엇인가로 생각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TEDx는 이처럼 본격적인 지식 공유와 소셜 러닝을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실천적인 지성의 네트워크로 접속하라

생각해보라.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 2천 개의 이벤트에서 공유되는 아이디어들을! 보통 이벤트 당 10명 정도의 연사를 무대에 세운다고 했을 때, 한 해에 발굴되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만 해도 2만 2,000 개가 넘는 셈이다. 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공유되고 자원봉사자에 의해 번역되어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로 퍼져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혁명적인 지식의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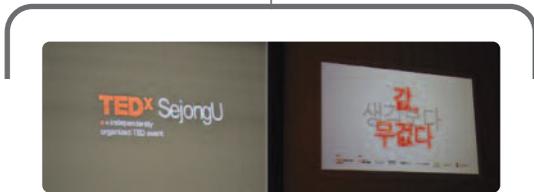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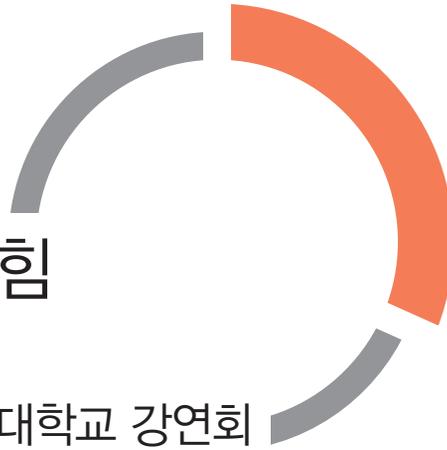
TED와 TEDx를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실천하는 지성'이 되기를 열망한다. TED와 TEDx의 무대에 선 연사들은 강연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열정적인 강연을 펼치며 청중들과 시청자들에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한다.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의 내적인 동기가 없다면 어떤 아이디어도 의미가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식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내적인 흥분과 의미를 느낀다. 그래서 TEDx를 경험한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를 이끄는 삶의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의미 있게 바꾸기 위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열정의 지식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TED.com과 한국의 TEDx에 접속하기 바란다. ●

이 글을 써준 송인혁님은 삼성전자에서 SW 기획자이자 개발자로 7년간 일했다. TED에 매료되어 국내에 TED 바람을 불러일으킨 그는 지역 이벤트인 TEDxSamsung의 공동 창립자로서, 그리고 TEDxSeoul의 오거나이저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힘쓰고 있다. 현재는 퓨처디자이너스의 대표로서 미래 비즈니스 발굴과 창의적 조직문화의 본질을 확산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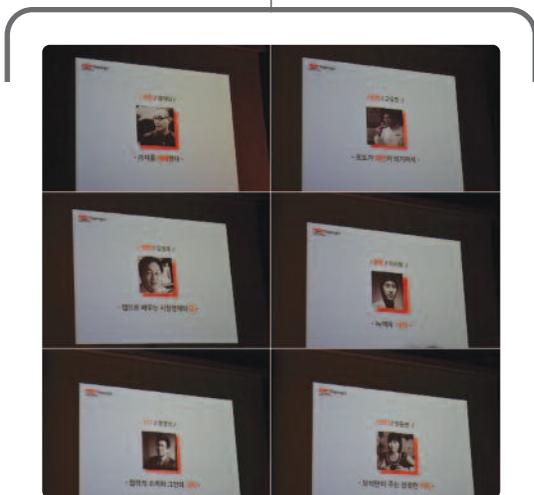
글. 박하나 자유기고가

왕복 420분이 아깝지 않은 ‘18분’의 힘

‘값’을 주제로 한 TEDx 세종대학교 강연회



지난 11월 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홀에서 '값'을 주제로 한 TED 강의가 열렸다.



세종대학교 TED 강연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사진, 와인, 경제, 환경, IT, 보석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해 18분 동안 강연을 펼쳤다.

테드(TED)란 Technology(기술),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Design(디자인)을 통합한 약자로, 1984년 창설된 국제컨퍼런스의 명칭이다.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란 모토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18분의 강연을 통해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

지난 11월 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홀에서는 '값'이란 주제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홀에서는 테드(TEDx) 강연이 열렸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복도에서는 관객들의 들뜬 기분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북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젊은 관객들의 화제는 주로 이날 나올 강연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날 강연에 나선 6명의 강사진들은 사진, 와인, 경제, 환경, IT, 보석 등 자신의 분야에 대해 각자 18분 동안 강연을 펼쳤다.

국내 TEDx 관계자는 "18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강연자들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자기 분야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시간이다"며 "결국 이 짧은 시간 동안 시각적이고 극적인 연출이 이어지면서 강연의 질과 감동은 더 커지고 참석자들은 최고의 집중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18/60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소몰리에 고유민 씨가 '포도가 와인이 되기까지의 가치'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첫 번째 '값' 사진작가 김아타

“상처받지 않고, 나답게 스스로를 설득해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즐겨주세요.”

환호와 함성, 박수 속에서 드디어 강연이 시작됐다. 첫 번째 강연자는 사진작가 김아타 씨. 2006년 뉴욕국제사진센터에서 아시아 작가 최초로 개인전을 가졌을 뿐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아트 컬렉션을 비롯해 휴스턴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사진작가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자연이 그린 그림(The Project—Drawing of Nature)’의 36번째 캔버스 설치 현장과 관련한 화면을 준비해 관객들과 함께 감상하면서 사진을 통해 ‘가치를 해체한다’는 주제의 강의를 이어나갔다.

‘자연이 그린 그림’이란 전 세계의 성지와 분쟁지역 등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를 설치했다가 2년 후 수거하는 프로젝트이다. 당연히 캔버스에는 자연이 남긴 흔적이 기록된다.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과 허난성, 일본 도쿄와 히로시마, 인도 보드카야와 갠지스 강변, 한국 DMZ 향로봉 등 전 세계 30여 곳에 이미 캔버스가 서 있다. 그는 캔버스를 통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라고 강조했다.

“캔버스를 통해 나는 그저 화두만 던져 놓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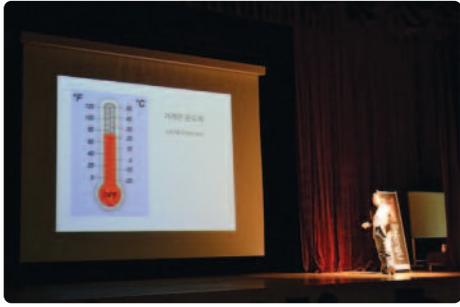
예술 분야에서 ‘가치’라는 것은 틀을 정해놓는 순간 무의미해진다는 그는 그냥 물 흐르듯 무장해제 해버릴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잡스가 되고 싶다고 똑같이 따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상처받지 않고, 나답게 스스로를 설득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해 청중들로 하여금 기립 박수에 버금가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 '값' 소몰리에 고유민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두 번째 강연은 소몰리에 고유민 씨의 ‘포도가 와인이 되기까지의 가치’. 그는 1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와인의 가격이 천차만별 다른 것은 브랜드 이미지의 가치 때문이라며 오래된 와인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치를 갓 담아 익어가는 동안 먹는 하루하루의 맛이 다른 것처럼 와인도 품종에 따라 최고의 맛을 내는 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먹어본 수많은 와인 중 가장 맛있었던 와인은 바로 편안한 자리에서 먹었던 1만 2천 원짜리였다고 말하면서 “누구와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먹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가격으로 그 가치를 결정하기보다는 제품 본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장경제 상황을 온도계에 비유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세 번째 ‘값’_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좋은 가격이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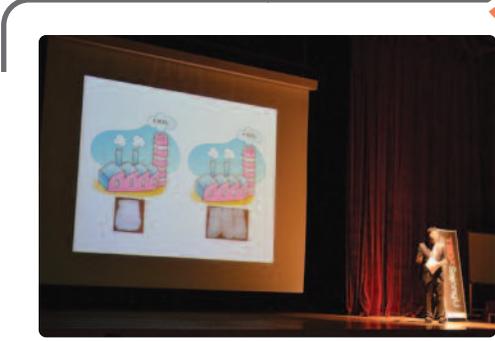
“Hey, yo! 시장 경제는 온도계와 같은 법! 날씨가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 우리 사는 인생도 별반 차이가 없어”

세 번째 강의는 랩으로 시작됐다. 잠시 조용했던 강연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랩으로 배우는 시장경제의 값’이란 주제로 시장경제를 온도계에 비유했다. 시장가격은 눈에 보이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좋은 가격이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격이라고 했다. 서 원장은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면서 “몸값은 높여야 월급이 올라간다”는 재치 있는 멘트로 취업을 앞둔 준비생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네 번째 ‘값’_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연구원
“이제는 환경적 요소가 기업의 가치를 움직인다”

네 번째 강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연구원이 ‘녹색의 가치’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최근 일어난 태국의 홍수사태를 예로 들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 세계시장의 흐름은 기후환경에 따른 제품 선호도의 변화에 있다”고 강조한 그는 일본의 소니 사를 예로 들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 있었던 플레이스테이션이 유럽지역에서는 화학물질 규제로 판매금지 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는 물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들도 이제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녹색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 ‘녹색의 가치’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연구원이 현실적인 예를 들며 강의를 하고 있다.

다섯 번째 '값' _ 번개장터 공동 창업자 장영석
 “협력적 소비로 지구와 사람을 구하라”

다섯 번째는 IT 분야 강의였는데 번개장터 공동 창업자 장영석 씨가 ‘협력 소비와 그 안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가 운영하는 번개장터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번개장터는 KT 소셜미디어팀에 근무했던 장씨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다가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했다. 그는 “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정말 까다로워 쉽지만은 않았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이윤은 부족하지만 이러한 협력적 소비를 통해 환경과 우리 스스로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력적 소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력소비와 그 안의 가치’라는 주제로, 번개장터 공동 창업자 장영석 씨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창업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섯 번째 '값' _ 주얼리 디자이너 안동연
 “갈고 닦아야 가치를 인정받는 보석처럼
 자신을 연마하라”

마지막 강연은 ‘보석만이 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주얼리 디자이너 안동연 씨의 강연이 이어졌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는 세공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며 구슬도 꺾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보석도 갈고 닦아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했다. 보석의 의미가 영원, 사랑의 상징인 만큼 보석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그녀는 “개봉하기 전까지의 그 설렘을 여러분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면서 객석에 앉아 있는 관중들에게 미리 준비한 보석을 하나씩 나눠줬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가 느낀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도 사회에서, 무엇보다 자신이 제일 잘 하는 분야에서 찾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80여 명의 대학생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는데, 하나의 강연이 끝날 때마다 대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환호와 함성으로 만족도를 표현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취업준비생 박모 씨(28·남)는 “TED 강연은 처음인데, 6시간 내내 뭔가 짜릿했다”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420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TED 강연에서 받은 영감과 자신감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차게 말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최모 씨(23·여)는 “주말에 할 일도 없고 해서 친구를 따라 왔는데 TED 강의를 듣고 새로운 세계를 만난 기분”이라며 5천 원 주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강연이 정말 최고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정말 강력히 권하고 싶다고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TED 강연에 폭 빠져 벌써 네 번째 참석한다는 직장인 이모 씨(27·여)도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상상력, 그리고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너무 좋다고 말했다. 18분의 짧은 강연이지만 죽집게처럼 핵심만 담아 이야기해주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니 계속 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6시간에 걸쳐 18분씩 이뤄진 6개의 폭풍강의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비타민 같았다.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공유 강연이 전국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 누가 관리할 것인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시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에는 조직원들의 갈등, 스트레스, 고민 등이 모두 개인의 몫이었고, 개인적 요소가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직 차원에서 개인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개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조직생활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개인적인 성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조직과 개인 생활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의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최근 L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구성원의 스트레스는 조직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인의 77.7%가 '울컥'하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 상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하직원 또는 직장상사 개인의 성격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의 잘못인가 밝히는 개념이 아니라 발생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관리'할 것인가가 주제가 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스트레스 관리, 조직이 나선다

최근 조직 및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정과 일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해야 개인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이것이 결국 업무 집중도, 직장 내 관계 개선, 충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가 커지면 조직원들은 몇 가지 공통된 반응을 보인다.

첫째, 일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서 일을 회피하거나 일의 양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로 힘들어지면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일의 양을 줄이거나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비중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경향성은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이 많고 힘들어서 개인 생활에 영향이 온다면 오히려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직의 발전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셋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힘을 쏟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 덜 힘들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다. 이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가족친화 경영,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와 같은 관리 프로그램을 조직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자원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조직을 위해 자신이 가진 역량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오래 조직에 몸담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여건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과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연계되고 상생되도록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고민, 스트레스를 조직에서 관리해주면 개인이 조직을 신뢰하고 업무에

충실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성과 창의성이 올라가고 결국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 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민 부서, 사회복지·방재·보건 분야 등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경우, 특히 자신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스스로가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나고 힘든 상황에서는 건강한 대민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객을 크게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의 개념으로 구분해 본다면 공직자들은 내부 고객이라 할 수 있다. 내부 고객부터 자기관리가 잘 되고 행복해야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항상 강조되고 당연시 여겨지는 만큼 내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심리적, 정신적 건강 관리 역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각자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직과 개인 모두를 위해 현명하고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다. ●



명품 국민을 만드는 '매너'의 힘

미국 평가회사인 Reputation Institute에서 50개 국을 대상으로 2010년 국가별 평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은 34위! 50개국 중 34위라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할 만한 국가들 즉, 태국, 폴란드, 페루, 푸에르토 리코 등보다도 뒤쳐진 순위다. Reputation Institute는 평가기준으로 국가에 대한 존경과 신뢰, 호감, 국민 생활의 질, 치안 상황, 정부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가운데 한국은 도대체 어느 기준에 미달하여 하위권에 머무르게 된 것일까?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한국 경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국민 생활의 질, 치안 상황, 정부의 효율성 면에서 다른 나라에 결코 뒤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준은 과연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가?'일 것이다. 상위권에 포진한 국가들 즉, 캐나다와 스웨덴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면면을 볼 때 그 기준이 국가의 평판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임을 알 수 있다.



정기옥

OECD 국가쯤 되면 그 국가의 이미지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세계 공통의 수식어가 있다. 미국은 제일 잘 사는 나라, 영국은 신사의 나라, 프랑스는 문화의 나라, 북유럽 국가는 강소국 등등. 그런데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 경제 기적을 이룬 국가, 동방예의지국, 오천 년의 역사?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현실적으로 한국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 일등의 휴대폰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K-pop이 세계 젊은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알아도 삼성이 한국 회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K-pop에 열광하는 층은 일부 젊은이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존경받는 부자 - 부족한 2% = 졸부

우리는 '잘 살아보세'라는 기치 아래 지난날들을 쉬지 않고 달려왔다.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인내하면서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졸부는 되었는데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한 2%가 부족했다. 바로 그 모자람이 한국의 국가평판을 중·후진국보다 뒤처지게 만든 이유였음을 알아야 한다. 국력의 하드 파워인 경제력은 상당한 수준인데도 소프트 파워인 국민의 이미지는 이러한 경제력을 따르지 못해 국제적 평판에 흠이 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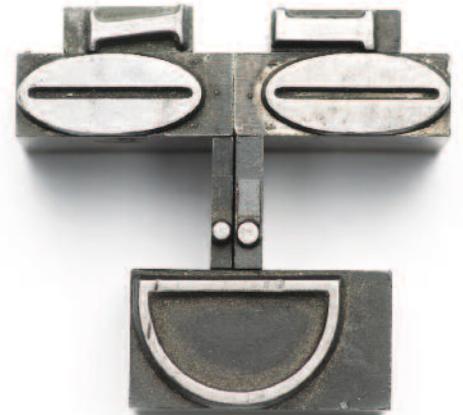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의 이미지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경제 수준은 높아졌지만 과연 남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호감을 느끼는 국민성을 가졌는지부터 우선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 인상이 참 좋더라"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식 + 인품 = 참다운 지성인

그런데 사람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외모다. 외모가 사회생활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류의 바람을 일으킨 스타들의 외모가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영화배우 배용준은 외모로 일본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여 일본에서 한류의 열풍을 일으켰다. 이처럼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어느 국민 못지않은 수려한 외모와 환칠한 체구를 자랑한다. 그러나 외모만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는 없다. 내면의 지성이 결합된 외모는 한낱 밀랍인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론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배움 없이 지성을 갖출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지식만으로 지성인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지식에 인품이 더해질 때 참다운 지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품위 있는 인격체 형성에 매너가 필요한 이유다. 매너 없는 지식인, 그것은 단지 '차도남'에 불과할 뿐이다. 겸손, 친절, 성실, 예의...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여기에 외모와 지식까지 갖추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완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좋은 이미지를 가꾸기 위하여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외모는 타고난 것이고 지식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것인 반면, 매너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덕목이다. 그래서 매너가 우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인격 = 매너

사람은 돈, 권력, 명예와 같은 목표를 향해 일생을 질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표를 달성한 사람 가운데 부럽긴 하지만 존경스럽지는 않은 인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본다. 반면에 평범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기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이 차이일까. 바로 인격이 이들을 가르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인격은 바로 매너이다. 남에게 늘 겸손하여 "Please"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Thank you"로 표현하며,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I am sorry", "Excuse me"로 사과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Hi"하며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러한 국민적 품격을 갖출 때 우리는 명실상부한 명품 국민으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내년의 우리나라 국가 평판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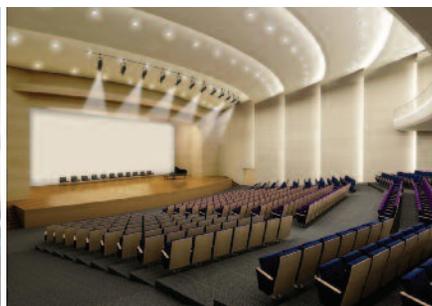


전북혁신도시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지방행정연수원 신청사 착공식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난 11월 3일 신청사 착공식을 계기로 대내외에 본격적인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47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지방행정연수원 신청사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물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환경에 맞춘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개발센터로 다시 태어날 지방행정연수원 신청사 착공식,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본다.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에서 첫 삽 뜨다

지방행정연수원은 2005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3년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지난 11월 3일 완주군 이서면 이전 부지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신청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날 착공식에는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과 김완주 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20여 명의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완주군 이서면 이장협의회장, 부녀연합회장 등 22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해 지방행정연수원 전북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표시했다.

신청사는 에너지 절감형 녹색청사로

이번에 착공하는 신청사는 18만 1,794㎡의 부지 위에 지상 7층 규모의 본관동과 2동의 생활관, 대강당, 체육관 등 총 5개 동으로 지어지며, 건물 내부에는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지붕, 벽체, 바닥의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감형 녹색청사로 건축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녹색건축의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라북도의 브랜드 파워 높아진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스타급 강사와 지방의 고위 공무원,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 공무원 등 매년 13만 명(연인원 기준)이 전라북도를 찾게 된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면 한옥마을, 한지, 판소리, 비빔밥, 새만금 등 전북의 대표 브랜드를 전국, 나아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는 전북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찾는 1등 교육기관으로 나아가다

지방행정연수원은 1965년 개원 이래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현장에서 25만 명의 지방 핵심인재를 배출해 낸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앞으로 전북혁신도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계기로, 천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전라북도의 교육환경,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십분 활용하여 지방자치 선진화를 주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의 요람, 24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호흡하고 공생 발전하는 1등 교육기관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것이다. 이로써 지방행정연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센터로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





지방의회 발전의 견인차 2011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2011년 지방의회 아카데미〉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9(목)~30일(금),
10월 4일(화)~5일(수),
2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다”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지방회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2011 지방의회 아카데미.
현재의 달콤함에 만족하기보다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보다 높은 이상을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미 있는 연수 현장으로 찾아가본다.



2011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한 기초의회 의원들



광역의회 의원들의 기념촬영



이해문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현역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의정활동 우수사례' 발표



'정책 형성을 위한 의원의 역할'에 대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강의



'의정활동 경험 및 성공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강연한 오세창 경기도 동두천시장(위)과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아래)



전국에서 모인 지방의회 의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중해 지방행정연수원장

이번 <2011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연수과정에는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한 7개 시·도에서 19명의 광역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를 비롯한 9개 시·군·구에서 23명의 기초의회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역량 습득과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방의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2년차에 접어든 지방의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정책형성을 위한 의원의 역할(김원기 전 국회의장), 행정감사·조사기법 심화과정(이주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현역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의정활동 우수사례(이해문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의정활동 경험 및 성공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의원 출신 현직 단체장(오세창 경기도 동두천시장,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초빙하여, 지방의원 당시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의정활동 성공전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교육과정 지향

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유사 교육기관과 차별화되는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인지도와 전문성을 겸비한 저명 강사들을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의원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 원의 역할 인식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반영한 대상(연차)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다양한 전문 강사 및 국외 선진 지방의회 의원을 초빙하는 등 강의의 질도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명강사 초빙을 통해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방의회 의원 대상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 25년만의 터닝 포인트



5급승진리더과정 입교를 위해 연수원 정문을 들어섰다. 행정 9급부터 시작해온 공무원 생활 25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군 생활을 마치고 스물여섯에 공직에 들어와, 오십을 갓 넘긴 올해 드디어 사무관 승진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선후배들의 격려 속에 입교하게 되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입교식 날, 전국에서 모여든 445명의 낯선 동료들과 대강당에서 교육과정 안내를 받은 후, 현충원으로 이동하여 참배하였다. 수많은 애국선열과 조국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용사들이 고이 잠든 곳, 바로 그 현장에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리더십에 대한 답을 찾다

강원도 홍천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된 자기 변화 촉진훈련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오는 경직성을 깨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첫날은 힘들었는데, 이튿날부터 어색함을 참고 올동을 따라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그날 밤 나는 벤치에 앉아 이 교육을 통해 자신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차근차근 새겨 보았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다. 전남도청에서 모두 12명이 입교했는데, 함께 입교한 선배 한 분이 나에게 대표에 출마해줄 것을 권유해 끝내 수락하고 만 것이다. 합숙훈련이 끝나는 날 선거에 임해야 하는데, 외향성이 부족하고 남 앞에 수월하게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라 적잖이 부담스러웠다. 그럼에도 시군을 포함, 전라남도 지역에서 함께 입교한 40여 명의 동료들이 뜻을 모아 권유하는 바람에 더 사양하기도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창피 당할 각오를 하고 대표에 출마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낙선이었는데, 대신 총무 선거에 당선되었다. 총무를 맡으면서, 나는 외향적 리더십보다 내적인 자기 헌신을 통해 봉사하기로 마음 먹었다. '여러 사람을 감동시키자. 그것도 리더십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기로 했다.

총무를 맡고 보니 강의 사전준비, 공지, 자료 취합 등은 물론, 동료들의 다양한 요구도 수용해 주어야 하는 쉽지 않은 역할이었다. 명찰을 잃어버린 동료가 하루에도 몇 명씩 나왔고 지갑·가방·소지품 분실, 마이크 음량에 대한 요구, 좌석 문제 등 다양한 요구들이 매일매일 생겨났다. 다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충실하게 듣고 기록하면서 처리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총무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었는데, 이 말은 나에게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인가 저녁 회식을 마치고 하숙집을 가려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길 가는 사람에게 하숙집 위치를 물었더니 '총무님 아니시냐?'며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나를 알아본 그 동료 사무관은 심지어 하숙집에 바래다주기까지 했다. 둘이서 손을 꼭 잡고 하숙집까지 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이 또한 파장동의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을 듯하다.

**유익한 강의와 현장 체험,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

교육과정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평가대상 과목이 부담으로 떠올랐다. 주관식 과목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을 택해 그간 일선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과제를 연구했고 본인의 주장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객관식 과목인 행정법과 민법은 수도권 의 저명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사례 중심의 강의라서 매우 유익했다.

강의시간 중에는 최대한 몰입했다. 내가 언제 이런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교육 기회라고 생각하니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졌다. 교육이 끝나고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또 시험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직무교재와 관련 자료를 찾아 충실하게 읽었다. 그 덕분인지 수료식 날 전체 1등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마음이 뿌듯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18명의 동료가 참여했던 분임활동이다. 민생 체험 활동 및 연구 주제인 '다문화 사회 통합방안 연구조사'를 위해 안산 다문화특구와 전주를 방문했는데,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 애로점을 듣고 다문화 거리를 둘러보면서 생생한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 분임 연구결과 발표자를 맡게 된 덕분에 시나리오 작성과 발표 연습에 온 힘을 쏟았다. 주말에 광주로 내려가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발표 연습을 반복했다. 분임활동을 통해 동료들과 두터운 우정을 쌓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바닷가 펜션에서, 그리고 전주 한옥촌에서 분임 동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보낸 시간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우리 분임은 결국 '정오품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제는 변화할 때다

6주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리더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등 부족한 분야에 대해 관심 촉발과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해 준 강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조직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이번 교육은 나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인체에 비유하면 허리에 해당된다. 허리가 없으면 조직의 생존 자체가 어렵다. 중간관리자는 구성원들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힘든 일에 솔선하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 나는 분명 변화의 계기를 맞았고 봉사과 리더의 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얻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교육이 끝난 지도 벌써 두어 달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 마음을 연수원에서 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채 임지에 와 있다. 한없이 친절하고 고마운 연수원 임직원들과 교육을 함께 받았던 동료들을 떠올려본다. 지난 가을, 높고 푸른 하늘과 그들이 있었기에 정말 행복했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시도 교육원장, 교수, 행정요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 사이버교육 학습 실태와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발표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현리 경기도 인재개발원 e-러닝 개발팀장으로부터 수상 소감과 함께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들어본다.

변화하는 교육, 흔들림 없는 뿌리를 찾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가을 풍경이 참 곱고 평화롭다.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준비하던 지난 봄과 여름의 심적 부담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늦가을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도 쌀쌀한 가을날이었다. 그 날, 나는 입사 면접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 택시를 타고 있었고, 얼마 후 그 회사에서 교육 분야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 초창기였는데, 나의 사이버 교육 커리어의 시작점이 바로 이 즈음이었다.

그 후 십 수 년이 훌쩍 지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몸담은 지도 어느덧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사이버 교육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에 관련 분야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기술과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간발의 차이로 한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바로 사이버 교육 분야이다. 문득 업무에 대한 나의 감각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2011년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연구 주제를 잡는 일부부터 만만치 않았다. '공공교육 분야에서 사이버 교육과 관련해 가장 필요하지만 또한 부족한 연구 자료가 무엇일까?' 고민 끝에 얻은 대답은 사이버 교육의 학습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내가 속한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이버 교육의 본격 도입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뒤늦은 후발주자였기에 사이버 교육 인원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그간 사이버 교육 학습실태 등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꾸준히 발표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 논문에서 제시했던 통계 자료는 유효 모집단이 수백 명 수준에 그쳐 그 결과를 업무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여기에 착안해 이번 대회에서 3천 명이 넘는 유효 응답자에 대한 다각적인 통계적 분석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연찬대회 수상 이후, 각 시도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기초자료에 대한 요청과 질문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물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극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이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역동성에 대처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수요원 연찬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또 그 성과를 바르게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의 기본을 다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



보상 업무를 통해 얻은 특별한 가르침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지방행정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는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심사하여 우수 연구 보고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최종 발표대회 심사 결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공용수용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대전광역시 김형근 주무관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들어본다.



“왜 집에서 잠 안자고 등기소 앞에서 잠을 자? 핸드폰, 지갑 찾아봐.”

2003년 어느 여름날 새벽, 툭툭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 등기소 앞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였다. 그 전날 오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이득반환' 사건 변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참석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낸 나는 퇴근길에 다음 사건 변론준비를 위해 자문 변호사 사무장과 소주를 한 잔 마셨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토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등기소 앞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다. 보상계약 이후 채권 압류가 들어와 '등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곤 했기 때문에 늘 긴장한 상태로 지내다보니 생긴 에피소드 중 하나다.

그 무렵, 나는 보상소송 7건을 전담하다보니 거의 매일 법원을 출입했다. 보상 업무의 특성상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고 민원 처리하는 등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았는데, 업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법적 전문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일이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업무였고, 이해가 충돌하는 보상 업무의 특성상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 행정집행에 불만을 가진 피수용자에 의해 법원에 기소되는 황망한 사건도 있었고,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피수용자를 위해 상속 처분을 도왔던 아름다운 기억도 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용산4구역 재개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치유되지 않은 상흔(傷痕)으로 남았다. 또한 같은 시기에 보상이 이뤄졌던 '홍명상가' 철거 건은 영업보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사회과학 차원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연구해보기도 했지만,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다 나은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연구하다가 결국 학술적인 증명을 통해 접근한 결과 영업보상에 있어서 보상 요인과 공용수용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논문이 지방공무원 정책연구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공용수용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영업권 소유 유무, 영업 소득, 보상금 등이 공용수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함께 '용산4구역 재개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볼 때, 보상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Social consultation)'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나의 연구 결과가 향후 보상행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



인문학으로 돌아가다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과정 & 역사 바로알기과정

“시야를 넓히고 지혜를 키워서
통찰력과 선견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이 11월 4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시절에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과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기업과 사회에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다. 우리의 앞길을 걱정하는 인생의 선배로서 들려주는 애정 어린 채찍질이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와 정치, 사회에 불확실성이 만연할 때 사고력, 창의력, 도덕적 규율, 인류애 등을 길러줄 수 있는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인문학과 융합된 기술이야말로 인간에게 감동을 준다”고 얼마 전 사망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정의, 도덕, 자유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인문학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

지방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과정’과 ‘역사 바로알기과정’을 올해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했다.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를 반영하듯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두 과정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지난 4월, 1기를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었던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과정’은 교육기간과 회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3일에서 5일로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6월, 10월에 추가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2기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프랑스 오르세미술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역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본다

올해 4월 19일 지방행정연수원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무원 대상 역사교육은 단순한 역사 지식 전달을 넘어 공직자로서 한국사 학습과 역사 인식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왔다. 따라서 역사교육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번 ‘역사 바로알기과정’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문과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공석구 한밭대 교수, 박태균 서울대 교수 등 저명한 역사학자를 초빙하여 한국의 기록문화유산, 조선의 근대화 과정, 중국의 고려사 왜곡,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등 과거와 현실을 넘나들며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대처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초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다

‘인문학(人文學)’은 언어, 문화, 역사,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과거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잊혀져가던 학문이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인문학에 다시 주목하는가? 한번쯤 그 이유를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답은, 인문학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것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기본을, 중심을 찾고자 한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균형 있고 올바른 역사의식, 사회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갖추 수 있다면 앞으로 다원화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싶다면 지방행정연수원의 명품 과정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과정’과 ‘역사 바로알기과정’을 추천한다.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역사를 바꾼다

글: 이정걸 울산광역시 북구

“아,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난 역사 과목이 정말 싫어.”

학창 시절, 어느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 그 친구의 말처럼 역사를 지나간 과거로만 생각하거나 왠지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IT 천국에 살고 있는 젊은 층, 그리고 여성들에게서 그런 경향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역사가 영어로 history 즉, 그의 이야기(his story)라서 그렇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역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단지 지나간 과거로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역사가 살아있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고구려사의 중국역사 편입)을 들 수 있다. 역사를 기술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줄이고 떴떳한 것만 확대하려는 현상은 자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이유는 후세인들이 좋은 점을 본받고, 나쁜 점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치밀하다. 그들이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며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역사 왜곡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만주에 있는 광개토태왕 비문의 내용을 조작하고, 가야와의 상거래 조적을 지배조직으로 왜곡하는 등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기 위해 100년 전부터 준비해 온 그들이 아닌가.

중국은 중화사상에 사로잡혀 중국 이외의 민족이나 국가는 다 오랑캐로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역사관을 바꾸고 있다. 소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그것인데, 현재 중국영토 내에서 있었던 역사를 모두 자국의 역사에 포함시키고, 오랑캐라 불렀던 민족도 한족과 다른 이민족이 아니라 '중화민족'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 이전의 서남공정 등을 통하여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떠한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또 우리의 국토를 자기네 영토라며 역사 왜곡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쟁지역으로 비춰질까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외교당국, 냄비처럼 끓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식어버리는 우리의 국민의식,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역사의식과 고토회복의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행정연수원의 '역사 바로알기과정'은 의미 있고 유익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부처 공직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학교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부의 역사의식 부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5일간의 역사 바로알기과정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과목은 귀화한 일본인의 강의라서 더 충격적이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현장체험학습 '정조의 개혁정신과 화성 탐방'의 김영호 강사는 정조의 개혁정신과 공직자의 의식 부분에서 거의 웅변 수준의 열의를 보여주었다.

역사 바로알기과정 외에도 중국 바로알기와 일본 바로알기, 미국 바로알기 등의 과정도 개설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년에는 중국 바로알기과정도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LOGODI & People

다시 현장 속으로!



정리, 편집실

이충근 제3기 고급리더과정



김건태 제11기 중견리더과정



박미화 제18기 여성리더과정



장기과정연수,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높은 도약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장기과정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을 공직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정립하기에 앞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매년 수료생들에게서 넘치는 여유와 의욕을 느끼게 된다. 12월 16일 수료를 앞둔 올해의 연수생들은 어떨까? 특유의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었던 2011년 장기과정 연수생 5명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김중호 제3기 고급리더과정



이두환 제8기 고위정책과정



배운 것, 배운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다시 배우는 것

이두환 제8기 고위정책과정

연수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평소 자주 가던 청도천 물가를 걸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공간을 열어 보았다. 쉼 없이 달려 온 나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주려는 계기라고 읊조리는 것 같았고 초심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며 팍 차 있는 마음의 쓰레기통을 이참에 비우라고 하는 것 같았다. 걸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차츰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입교일, 전국에서 모인 분들의 지역을 감안한 분임이 형성되었다. 입장이 같으면 쉽게 동화되는 것일까? 연수생들과도 쉽게 가까워졌다. 현충원 참배, 판문점 견학으로 시작된 일정을 돌이켜본다. 사진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 국궁을 배우며 정신을 수양하는 시간들, 초빙 강사들의 인생담, 외국어, 정보화 교육, 그리고 독도와 백령도 안보의 현장, 외국 특히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 탐방, 다산 유배길·창덕궁·화성을 보면서

올 한해, 나는 아침마다 새벽공기를 맞으며 '나만의 여행'에 나섰다. 청주에서 복수원까지 매일 왕복 5시간 이상을 오가면서도 전혀 피곤함이 나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

사실 이번 장기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스스로 원하던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은 둘째고, 1년 동안 푹 쉬었다 가자'는 마음으로 입교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속 좁은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강사진, 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동료 교육생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진통 끝에 결국 마음을 비우고 새로 시작해 보자고 결정하고 나니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교육도 그렇게 재미있고 좋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지금 1년간의 길고도 짧은 여행을 마치면서 되돌아보니 이런 기회를 얻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아침에, 연수원을 향하던 버스에서 읽었던 글귀가 생각난다. 우종영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에 나오는 이 글귀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었다.

역사관을 논하던 시간, 무료 급식봉사 등등 많은 과정들이 떠오른다. 과정을 구성하여 꼼꼼히 준비하고, 가족같은 마음으로 연수생들을 보살피 준 김종해 원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그 동안 동기생으로 함께했던 동료 국장님들은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자투리 시간도 그냥 허비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이 분들과 함께한 파장시장에서의 진지한 밤 과외연수(?) 또한 잊을 수 없다. 서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각자의 살아 온 인생과 앞날을 얘기하다보면 때론 차수를 변경하여 1박2일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시간은 흘러 연수원 전정의 곱던 낙엽도 떨어져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계절이 되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거나 (read) 쓸(write) 줄 모르는 것이 아니며, 배운 것(learn)과 배운 것을 버리는 것(unlearn)과 다시 배우는 것(relearn)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다시 배운 것으로 채워 넣자고 다짐해 본다.



나는 지금 해거리를 하고 있다

이충근 제31기 고급리더과정

"나무는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과감히 포기한다. 이를 해거리라 한다. 해거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에너지 활동의 속도를 늦추면서 오로지 재충전하는 데만 온 신경을 기울인다. 그리고 1년간의 휴식이 끝난 다음 해에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

나는 지금 해거리를 하고 있다. 이제 '나만의 여행'을 마치면서 과거의 나처럼 살았거나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동료와 후배들에게 그들만의 여행 '해거리'를 권해보고 싶다. 1년간의 교육을 통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순간을 앞둔 시점을 맞아, 주인인식을 갖고 조직의 리더로서 한 톨의 씨앗이 되자고 다짐해 본다.

사회적 리더로 다시 태어나다

김종호 제3기 고급리더과정

연수원 도로변을 곱게 물들이 단풍이 어느덧 가을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보니,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연초에 1년간 연수 발령을 받고 입교할 때까지 내심 걱정이 많았다. 낯내기 시절 공직에 처음 들어와 36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시간의 수레바퀴가 갑자기 멈춰서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과 함께 남은 시간이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번 연수는 1년이라는 장기과정의 연수답게 교육 프로그램부터 월등했다.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배양과 공직가치 함양,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관리 능력 배양 등 다양하면서 깊이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교육이었다. 무엇보다도 지방 단위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강사진이 교육과정을 더욱 알차게 만들었다. 그동안 일에 쫓겨 소홀했던 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소양과정, 정보화와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이었던 중견리더과정이 10개월로 늘어나면서, 전국의 사무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내가 소속된 서울시에서도 선발 경쟁이 치열해 교육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진행된 교육은 2개월씩 차수별로 5차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연수기간 동안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다양

하게 진행된 현장학습이었다.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의 길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개발 현장도 둘러보았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해외연수이다. 해외연수는 분임별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되는데, 우리 팀은 프랑스 파리 와 스웨덴 스톡홀름, 러시아 등을 방문했다. 프랑스 파리는 국제도시로서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루브르박물관,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세느강 유람선 관람, 베르사이유 궁전 등을 보고 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천만 관광객에 대비한 볼거리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스톡홀름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호반의 바이킹

건강관리를 위한 식단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배려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들은 좁은 틀에 갇혀 공무원 생활을 한 나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었고, 국토순례, 울릉도·독도 방문 등은 나의 시야를 전국적으로 키워주었다. 또 하나의 소중한 체험은 노숙자들을 위한 밥퍼 봉사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이었다. 이 체험은 나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책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게 한 자리였다. 이러한 모든 느낌과 각오들은 연수과정의 큰 보람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음을 느낀다. 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 어느덧 연수 생활을 마감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이번 연수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나에게 굳건한 자긍심과 사회적 리더로서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만들어 주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삶의 보람과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시간들이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앞으로도 지자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방의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를 이해시키는 생산적 연수 프로그램으로 지방행정의 방향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1년간의 연수생활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방행정연수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몸과 마음을 넉넉히 충전할 수 있었던 시간들

김건태 제1기 중견리더과정

도시였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깨끗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오염원인 공장 등의 이전을 세금으로 촉진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세입의 80%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인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복지욕구의 확대에 따라 북유럽의 복지정책이 벤치마킹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정문에서 학교가 배출한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조각상을 볼 수 있었는데, 러시아 과학기술의 원동력을 보는 것 같아 부럽기도 했다.

이제 연수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지방행정연수원의 김중해 원장님과 교육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아울러 10개월간 함께 완주한 제1기 중견리더과정 교육 동기생 분들과는 공직생활 내내 서로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재충전된 심신으로 소속기관에 복귀한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비타민과 에너지가 되어준 18기 여성리더과정

박미화 제18기 여성리더과정

겨울의 기운은 아직 옷깃에 남아있었고 딱딱한 강의실 의자는 웬지 모르는 낯설음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고개 들어 푸른 하늘을 본 지 오래고 뒤돌아볼 여유 없이 앞으로 바삐 걸어온 날들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리더과정! 육아, 사무실, 딱딱한 공문서와 각종 시책들, 그리고 조직을 잠시 떠나 나를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는 명제 아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50명의 40대 여인들! 감성 리더십 훈련을 위해 경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낯선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져갔고, 3개월 동안의 합숙생활은 우리를 또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해주었다. 모두들 결혼 이후, 이렇게 타인과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시간이 흐르면서 룸메이트와는 어느새 여고졸업반의 단짝처럼 가까워졌다. 하루는 야간학습으로, 하루는 단합회로, 또 하루는 분임모임으로 그렇게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갔다.

18기 여성리더과정은 그야말로 명품과정이었다. 인품과 성품, 그리고 최고의 해박한 전문지식과 교양으로 가득 찬 강사들,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명강의들...

화사한 봄날의 햇살 아래 설레는 기분으로 참여했던 이화여대 리더십 역량강화과정을 비롯해 자신감을 키워준 독서발표회, 무엇보다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밥퍼 자원봉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고

마음을 느끼게 했던 고성 병영캠프 등 한 과정 한 과정 속에서 지식과 교양을 얻고 따뜻한 감성을 가득 채운 시간들이었다.

사람의 인연은 잠자리가 수십 수백 번 날갯짓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겁 속에 맺어진다곤 했던가? 각자 개성이 넘쳐났던 18기 여성리더들과 인력개발과 직원들! 처음의 쑥스럽고 어색했던 만남은 어느덧 끊어지지 않는 향연이 되었다.

이제는 동트지 않은 새벽길을 나서 왕복 4시간을 다녀도 신나기만 했던 정든 연수원을 떠날 시간이다. 늘 바쁜 일정을 쪼개 우리 여성리더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워하셨던 김종해 원장님을 비롯해 10개월 동안의 명품과정을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연수생과 담당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가족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잊지 못할 2011년 제18기 여성리더과정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다시 돌아보며 늘 가서 쉬고 싶은 큰 아름드리 나무였다. ☺





한국의 경험에서 탄자니아의 미래를 보다

탄자니아 공무원행정발전과정이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국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되어 기초자치단체 9명, 광역 4명, 중앙정부 2명 등 총 15명의 탄자니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KOICA에서 마중을 나와 향후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첫째 날 묵을 숙소 등을 알려주었다. 둘째 날, 드디어 참가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될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이동했다.

한국의 정책과 혁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다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한국의 비전에 기초한 이번 과정은 협력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깨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협력 국가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의 목적은 한국에서 지난 50년에 걸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활용된 정책,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탄자니아에 그대로 활용되거나 탄자니아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들과 혁신의 방향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서 기대가 되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제 및 기술 발전, 행정 및 재정 관리, e-정부, 굿 거버넌스와 행정 투명성 제고 등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삼성전자, 농촌진흥청, 정부통합전산센터, 포스코, 포항시, 현대 중공업 및 현대자동차, 그리고 부산항만청 등 주제와 밀접한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참가자

REMARKS BY TANZANIA'S DEPUTY PERMANENT SECRETARY O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OURSE ORGANISED BY LOGODI, 09~25 OCTOBER, 2011

Mr. Jumanne Abdallah Sagini
Deputy Permanent Secretary
Regional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Prime Minister's Office

1.0 Introduction

The course o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for Tanzania delegates was run by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popularly known by its acronym - LOGODI. The course ran between 9th of October, 2011 through 24th October, 2011. The Tanzanian officials in attendance were 15 and ranged from local governments/ districts officials 9, regional



administration officials 4,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2 of which males were 8 and females were 7. On their arrival, KOICA took charge in receiving them at Incheon airport to Koica for in it ial orientation and accommodation arrangements, especially during the first day of their stay. On the second day, participants moved to LOGODI which managed the training programme.

1.1 Objectives of the Course

Based on Korea's vision of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this course was aimed at supporting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partner country through strengthening its capacity to realise its development potentials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Specifically, the course aimed at sharing the policies, knowledge and experiences used by Korea to realise it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50 years. This would provide the possibility for a partner country to identify useful Korean policies, knowledge, innovations and experiences that could be replicated or adapted to suit the Tanzanian context.

1.2 Training Programme

The training programme was arranged in such a way that it gave an opportunity for delegates to share the experiences of Korea. The Korea, we know today, boomed from a poor and recipient of donor assistance to a member of the OECD. The programme covered the following interesting and relevant broad thematic areas: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e-government, good governance and transparency enhancement. These thematic areas were well augmented by relevant study visits to appropriat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ncluding the following: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들은 흥미롭고 생생한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제 경험을 연계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수요자의 니즈가 잘 반영되어 있었다. 삼성, 농촌진흥청 포스코 등 관련기관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이룩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수준에서 확고하고 능력 있고, 비전과 전략을 가진 리더십의 역할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다.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흥미롭고 생생한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 접근법 덕분에 탄자니아 공무원행정발전과정 프로그램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수강할 수 있었다. 다양한 교육 자료들은 동영상 자료, 파워포인트 등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어 활용되었다. 사례연구에 관한 교육은 참여자들이 탄자니아에서 한국까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장시간 여행으로 생기는 피로감을 덜어줄 만큼 생생하고 유익했다. 모든 수업에 생동감이 돌고, 과정을 운영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은 모두 계획대로 시간에 맞추어 참여했다. 다양한 현장과 기관을 방문하면서 교육 내용 모두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현실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교육 프로그램은 잘 짜여 있어서 앞으로 유사한 프로그램 가운데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개발도상국들과 과도기 경제상황에 놓여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이 지금도, 앞으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굳이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말하자면, 우선, 교수들이 교육 대상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대하여 더 공부한다면 좋을 듯하다. 그래서 한국과 어떤 국가를 비교할 때 대상 국가의 정책과 전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경험으로 보아 일부 참여자들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 자신의 시스템과 정부의 약점을 스스로 솔직히 털어놓고 말하지 못 한다. 이런 비교를 이용하면 마음을 열지 않는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시스템을 비판할 때 오는 긴장감을 덜어줄 수 있다.

또 다른 제안은 만약 유사한 프로그램이 대상 국가(target country)와 수혜국을 위해 보다 체계화되고, 앞으로 지방정부 기획 및 예산 제도와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와 평가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면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OPAS), Samsung Electronic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National Computing and Information Agency (NCIA), POSCO, Pohang City Government,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Hyundai Motors, and Busan Port Authority. All this helped participants to link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and, indeed, made the learning interesting and lively.

1.3 Relevance of the Training

The training programme was found to be relevant and reflected well the training objectives and participants' training needs. Delegates were gripped by the spirit of love and respect of hard work that Korean people have. It was clearly noted from the range of institutions visited from Samsung, RAD, POSCO, Hyundai through Busan Port Authority on the central role of firm, capable, visionary and strategic leadership in the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ttained by Korea and her people.

1.4 Training Methodologies and Innovations

The right mix of the training approaches employed by LOGODI's pool of experienced professors and other experts made the whole training programme o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for Tanzania enjoyable, non boring and informative. The use of various instructional materials coupled with innovative ICT facilities such as video clips, power point presentations and case studies made the teaching live and relieved participants from the wearisome

that would have been caused by jet lag, as a result of travelling more than 10,000 kilometres from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o Korea. The whole class was always live, on time and attentive to professors and other experts who were facilitating this course. Field visits to different sites and institutions made participants to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given by instructors were not fabricated but real.

1.5 Advice on Areas for Improvement

As noted in the previous paragraphs, this training was so well organised tha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areas that require strengthening in order to make participants benefit more by this or similar training package in the future. In principle, we strongly recommend that this kind of training is very useful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al economies. So LOGODI should continue running similar training now and in the future.

However, I have a couple of issues that may be improved so as to make teaching more educative and relevant. Firstly, let our experts prepare themselves well by studying about policies and strategies of the target country (eg. Tanzania) and use such information while making comparisons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in question. This can be effective when participants cannot be open, honest or frank. That would relieve them from the tension of criticizing the system of which they are part. My own experience somewhere is that based on culture, some participants may not be able to criticise or speak openly the weaknesses of their own systems or governments. My second and last comment is that the training could become accessible to many participants if similar training programme could be organised in the target/beneficiary countr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following topics could be included in your programme: a) Planning and budgeting at local governments; b)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projects. ©





“제 남편이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동안 직장 다니며 가족들 부양하느라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정년퇴직도 했고 많지는 않지만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침에 양치질하고 나면 칫솔을 물에 씻어서 세면대에 탁탁 치는 습관이 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그 소리까지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얼마 전 필자의 아내가 잘 알고 지내는 전직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하소연이다. 그 부인은 마음씨 좋고 인자하기로 주위에 소문이 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인데도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이니 성격 나쁜 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남성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년 후의 80,000 시간

많은 남성들은 정년퇴직을 하면 그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던 아내와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며 오순도순 느긋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내 역시 그런 날을 기다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아내는 이제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다. 밖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 떨며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예전처럼 남편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

남성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된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하며 깊은 허무감에 빠져든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설계에서 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년 후 80,000시간을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낼 것인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80,000시간, 문제는 ‘일’이다

정년 후의 80,000시간이란 어떻게 계산된 시간인가?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일본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40대 중반밖에 안 된 업계 후배들이 명예퇴직을 했다면서 직장을 알선해달라고 찾아올 정도이니 말이다. 어쨌든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우리나라 평균수명인 8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정년 후의 인생은 20년이다. 현역 시절에는 24시간의 하루가 너무 짧을 정도로 바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그렇게 바쁜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등등을 다 빼더라도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루 여유 시간이 최소 11시간 정도이면 20년의 여유 시간은 약 80,000시간(11시간×365일×20년)이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2,256시간이니까, 정년 후의 80,000시간은 현역시절의 36년 동안 일하는 시간과 맞먹는 것이다.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72년의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도대체 이 긴 인생을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강창희



수입도 생기고 사회공헌도 하는 NPO 활동

선진국의 경우에는 퇴직자들의 노후대비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 현역시절에 모아둔 자금이 노후생활비로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 생각을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등 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취미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NPO 활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NPO란 Non-Profit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민간 비영리 조직' 또는 '비영리 활동'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NPO 활동과 단순한 자원봉사(volunteer) 활동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100% 무보수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NPO 활동은 약간의 보수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시킨다.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100% 무보수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서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취업인구에 포함시킨다. 현재 미국에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실시한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0% 정도에 이르는 은퇴자들이 공식·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은퇴 이전에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 있는 실버 피플 '평생 현역' 시대가 온다

이웃나라 일본도 1990년에 발생한 고베 지역의 대지진 피해를 계기로 NPO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을 제정·시행한 것이다. 이런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금년 5월 말 현재 법인 인증을 받은 NPO가 4만 1,263개에 이를 정도로 설립이 붐을 이루어 왔다. 2~3년 전부터는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설립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현역에서 물러난 전문가들이 NPO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해비타트를 들 수 있다. 한국 해비타트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씨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서 유명해졌는데,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단체이다.

한국 해비타트 서울본부에 가보면 상근직원 50명 중 10명이 은퇴자들이다. 전직 또한, 건축설계사무소장, 건설시행사 임원, 대기업 계열사의 홍보담당 간부, 은행 준법감시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은퇴자들을 고용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도 안정적이다. 30, 40대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들어왔다가도 금방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은퇴자들은 NPO 활동을 생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 해비타트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교통비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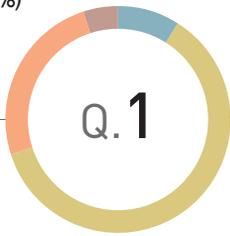
선진국의 예를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NPO 활동은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이 커지고 사회가 성숙하면 NPO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 생활비 정도는 걱정이 없는 은퇴자들이 약간의 수입을 얻으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직장인들이 현역시절에 쌓은 전문성을 후반 인생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평생 현역'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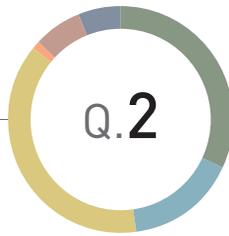
귀하는 현재 재테크 전략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재테크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 매우 만족 0명 (0%)
- 만족 17명 (9%)
- 보통 120명 (61%)
- 불만 50명 (25%)
- 매우 불만 11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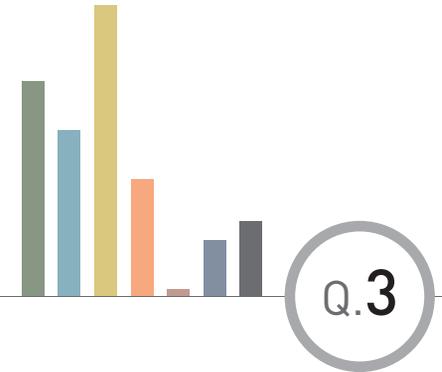
당신의 재테크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

- 부동산 64명 (32%)
- 주식·펀드 32명 (16%)
- 은행 예금(정기예금 또는 적금) 76명 (38%)
- 세테크 1명 (1%)
- 분산 투자 13명 (7%)
- 기타 12명 (6%)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습득하시나요? (중복 선택 가능)

- 신문·잡지 57명 (29%)
- 인터넷 포털 사이트 44명 (22%)
-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 77명 (39%)
- 관련 기관의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31명 (16%)
- 재테크 관련 동호회 2명 (1%)
- TV나 라디오 15명 (8%)
- 기타 20명 (10%)



“재테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수생 대상 재테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재테크란 무엇인가?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대 이익을 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자 '재무(財務)'와 영어 '(technology)'의 합성어인 '재무 테크놀로지'를 줄여 만든 말인데,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게 되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저축이 재테크 방법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와 연이은 금리 인하와 소액 저축 비과세 제도의 축소 및 폐지에 따라 저축이 재테크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 투자나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식과 펀드 투자 등 위험 부담이 높은 재테크 방법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1억 만들기 재테크, 부자들의 재테크 노하우, 당신이 속고 있는 28가지 재테크의 비밀, 재테크 독하게 등 재테크를 알려주겠다는 책, 블로그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테크 방법을 알려 준다. 일반적 수준의 재테크 방법이지만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과정 연수생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재테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과정 연수생들은 본인의 재테크 결과에 '보통(6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만(25%), 만족(9%), 매우 불만(5%), 매우 만족(0%)' 순으로 나왔다.

재테크 수단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은행 예금(38%)과 부동산(32%)'으로 나타났다. 재테크 목적으로는 대부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72%)'라고 답했고, '자녀의 결혼자금,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는 답변은 15%를 차지했다. 연수생들의 재테크 투자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예상대로 61%(121명)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안전 지향'이라고 대답했다. ☺

* 설문 조사 기간 : 2011. 10. 20 ~ 11. 11 / 전체 설문 참여자 수 : 총 1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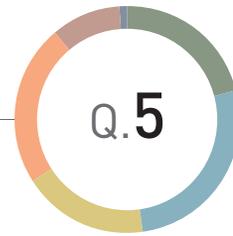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

-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142명 (72%)
- 자녀의 결혼자금,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29명 (15%)
- 내집 마련을 위하여 6명 (3%)
- 재산 증식을 통한 사회적 지위 확보 16명 (8%)
- 기타 5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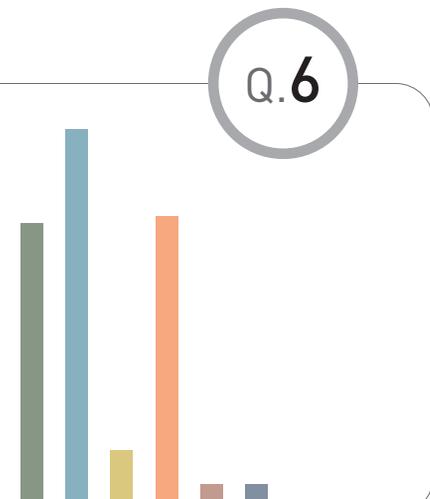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총 재산)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만 선택)

- 3억 이상 5억 이하 41명 (21%)
- 5억 이상 7억 이하 54명 (27%)
- 7억 이상 10억 이하 35명 (18%)
- 10억 이상 15억 이하 46명 (23%)
- 15억 이상 19명 (10%)
- 기타 3명 (1%)



여유 자금 마련, 노후 대비를 위해 어떤 재테크 수단을 선호하시나요? (중복 선택 가능)

- 부동산기타 77명 (39%)
- 예금 및 적금 102명 (52%)
- 주식 직접 투자 17명 (9%)
- 간접투자상품(적립식 펀드 등) 79명 (40%)
- 변액보험상품 8명 (4%)
- 기타 8명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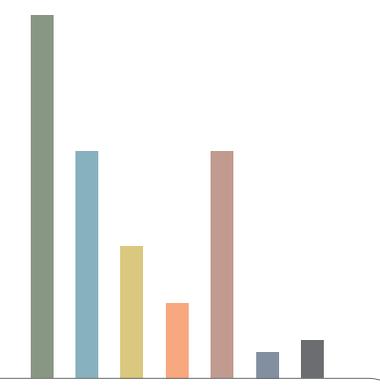
당신의 재테크 투자 성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 안전성을 추구하는 안전 지향 121명 (61%)
- 예금 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익률을 좇는 투자 지향 47명 (24%)
-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고수익을 좇는 적극적인 투자 14명 (7%)
- 투자 성향에 대한 고민 없이 주위에서 좋다는 상품에 투자한다 12명 (6%)
- 잘 모르겠다 4명 (2%)



재테크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양질의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고민이다. 96명 (48%)
- 나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여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다. 60명 (30%)
- 주식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35명 (18%)
-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어도 그 문턱이 높다. 20명 (10%)
-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60명 (30%)
- 주식, 부동산 투자성과 등 대박의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20명 (10%)
- 기타 7명 (4%)





선물 같은 인연, 내겐 너무 소중한...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연수원을 찾아옵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가족이 한 해에만 7천여 명을 훌쩍 넘습니다. 전국에 연수원 가족이 있는 셈입니다.

지난 5월에는 특별한 가족도 생겼습니다. 바로 수원시와 전북에 있는 15개의 가정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부모님 두 분 모두 안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부모·조손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연수원에서는 15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15개 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연수생과 직원들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여 각 가정의 1:1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가 후원하고 있는 가정은 할아버지와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할아버지는 6.25때 다리에 동상을 입으셔서 열 개의 발가락이 모두 없는 상태로, 거동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시고 어깨에도 총상을 입으셔서 그 자리에 아직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상태입니다. 귀도 어두우셔서 아주 큰소리로 말해야 겨우 대화가 가능하지요. 생활비는 정부에서 받는 약간의 돈이 전부라 생활은 늘 빠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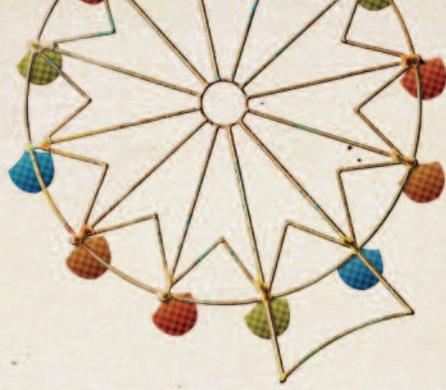
어려운 환경임에도 아이는 밝고 구김 없이 자랐습니다. 이름은 영민(가명)입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훌쩍 큰 키에 아주 미남으로 수줍게 웃는 얼굴이 매력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는 전교부회장도 하는 멋진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말 속에서 종종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묻어납니다. 의젓한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경삼아 백화점에 간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살까 고민하는데, 문득 우리 영민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웬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졌습니다. 수학여행 때 입고 갈만한 티셔츠를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학생들 옷 코너로 가서 옷을 골라봅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무엇을 입을까요? 어린 아이이니 귀여운 옷을 좋아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조숙하니 어른스럽고 깔끔한 옷을 좋아할 것도 같습니다. 2시간, 3시간... 제 옷을 고를 때보다 한참을 더 돌아보고 결국엔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결정!

영민이가 좋아해야 할 텐데... 결국 결과는 하늘에 맡겨봅니다. 며칠 후 아이에게 옷을 전해줬습니다. 고맙다고 잘 입겠다고는 하는데, 영 불안합니다. 워낙 예의바른 아이이니, 맘에 안 드는데 티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영민이와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저기 저쪽에서 영민이가 걸어나옵니다. 이럴수가! 영민이가 제가 사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선물한 것인데, 왜 제가 더 기쁠까요. 기대하지도 않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민이네 집에 놀러갔습니다. 영민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단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선물을 사기로 합니다. 영민이와 할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이 필요할까? 매번 고민스럽습니다.

이것도 사드리고 싶고 저것도 사드리고 싶고... 고민 끝에 아프신 할아버지를 위한 홍삼건강음료와 휴지 등 생필품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제 영민이네로 출발~. 미리 약속은 했지만 가는 도중 택에 다시 확인전화를 해봅니다.

할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아버지께서는 “잘 안들려서 난 몰라요”만 연발하십니다. 영민이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할아버지는 일단 계시는 거고, 또 택으로 찾아뵙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영민이네 도착했습니다. 멍둥~ 아파트 현관에서 영민이네 집을 호출합니다. 조용했습니다. 멍둥~ 멍둥~ 다시 놀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현관이 잠겨있어서 영민이네 집 앞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시는 할아버지께서 못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흐르고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께도 부탁하여 할아버님이나 영민이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집 앞까지 와서 헛걸음 하려니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봅니다. 어쩔 수 없어 발길을 돌리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얼굴! 영민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가운 얼굴이 또 있을까요? 저절로 함박웃음이 지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영민이와 할아버지. 고생은 했지만 반가움은 더 컸습니다. 이런 일들도 나중엔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요.

별써 우리 새 가족을 만난 지 반년이 되어갑니다. 같이 웃고, 서로 관심을 주고... 돌아보면 짧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먼 훗날에는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돌아보며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겠지요. 이 인연을 계속해서 소중하게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



공문서 작성, ‘소통’에 답이 있다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공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업무 능력과 직결된다.
공식적으로 작성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오류나 오해의 소지 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왠지 부담을 갖게 되는 공문서,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

공문서(公文書)는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가리킨다. 공공 기관에서는 공문서를 통해 기관 내외의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 소통을 하게 되며, 보도 자료나 보고서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그러므로 공문서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게 작성된다면 공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업무 처리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책이나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할 수 있다. 반대로 공문서를 작성할 때 바르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과 국민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정책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공공 기관에서 어문 규범이나 어법을 정확히 잘 지켜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공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들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문서는 모든 국민이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라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시행된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기

어문규범은 국민이 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으로, 한글 맞춤법(문장 부호, 띄어쓰기 포함),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아우르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공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문규범상의 오류를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두음법칙	회계연도/2011년도/연간 계획/제조 연월일 출산율/비율/합격률	회계년도/2011연도/년간 계획/제조년월 출산률/비률/합격율
사이시옷	전셋값/전세방/자리세	전세값/전세방/자리세
로서/로써	지방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킴으로써	지방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킴으로써
되/돼	3개월 매출의 40%나 돼	3개월 매출의 40%나 되
ㄴ✓바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밝힌 것'의 의미)	위에서 밝힌바에 따라
ㄴ바	추진할 계획인바 ('계획이므로'의 의미)	추진할 계획인✓바
데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기타	기한✓내, 진행✓중, 제출✓시, 부서✓간, 3일간	기한내, 진행중, 제출시, 부서간, 3일간
-이다/-하다	문서입니다, 모집하고자	문서✓입니다, 모집✓하고자
제(第)	제1차	제✓1차
단위	100여✓명, 2억✓원	100여명, 2억원
문장 부호	2011. 11. 3. 2011. 11. 3.부터 2011. 11. 5.까지 2011. 11. 3. ~ 2011. 11. 5.	2011. 11. 3 2011. 11. 3. ~ 2011. 11. 5.까지

*** 한글로 작성하기**

공문서나 보도 자료에서 한글 표기 없이 한자나 외국 문자를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소개하는 보도 자료에서는 외국 문자의 남용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다.

UEP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
TF → 특별 작업반 또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
對중동 → 대(對)중동

가능한 한 쉬운 말을 사용하라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공문서의 권위와 세련미를 높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과의 의사소통', '공공 기관으로서의 모범'을 생각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보다는 쉬운 우리말 단어,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서(開署) → 개설, 척사(擲柶) → 윗놀이, 시방서(示方書) → 설명서, 적의조치(適宜措置) → 알맞게 처리
타깃 → 목표, 글로벌 → 국제, 피니시 → 완료, 인프라 → 기반, 뉴스레터 → 소식지

정확하고 바른 문장을 사용하라

공문서의 문장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장 성분을 과도하게 생략하거나 중복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와 어미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고, 피동 표현이나 사동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명사를 반복 나열한 구조나 번역 투의 표현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제안서 교부는 신청자에게만 교부합니다. → 제안서는 신청자에게만 교부합니다.
결식아동에 도시락 지급 →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지급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 조리 시 → 조리할 때마다
범행으로 인해 벌어들이 수익 → 범행으로 벌어들이 수익

Tip

공문서를 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국립국어원 온라인 강좌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http://www.korean.go.kr/publang/>)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실 >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고구려와 발해, 그 유서 깊은 땅에 서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현재로 이어지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유기체이자,
미래를 변화시키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역사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지방행정연수원과 함께 한
〈만주지역 역사 현장탐방〉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



1



2



3



4



5

- 1 고구려의 도읍지 국내성(집안) 인근의 장군총
- 2 항일지사 양성의 산실이자 당대의 명문학교 용정중학교(구. 대성중학교)
- 3 압록강, 맞은편에 보이는 북한땅
- 4 일송정
- 5 장백폭포
- 6 민족시인 윤동주 선생 생가



6



과거나 지금이나 땅에 대한 역사는 그 시대 그 민족의 삶이요, 처절한 지킴의 과정인 것 같다. 중국의 동북공정, 독도 문제, 이어도 해역 등의 영토 문제를 생각하면서 동북3성 요녕, 길림, 흑룡강성 등 소위 만주 일대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답사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조상들의 투쟁 현장을 방문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고구려의 요녀산성, 국내성, 백두산, 일제시대 항일운동의 발원인 용정 비암산, 일송정, 대성중학교, 윤동주 시인 생가 등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지방의 역사로 윤색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놓았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 하기엔 그 관리가 너무 소홀하여 가슴이 쓰렸다. 광개토태왕릉은 허물어져 있었고, 장군총에는 잡초만 무성했으며 사신도 고분에는 습기가 가득했다.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토 문제

고구려 이후 발해,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고토회복을 위한 간단없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리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발해의 역사는 거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리고 그에 대한 연구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의 영산이라는 백두산도 장백산이라는 중국 땅을 통해야만 오를 수 있는 현실 아닌가? 근대사만 보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항일 현장에 대한 관심조차 소홀한 것 같다는 느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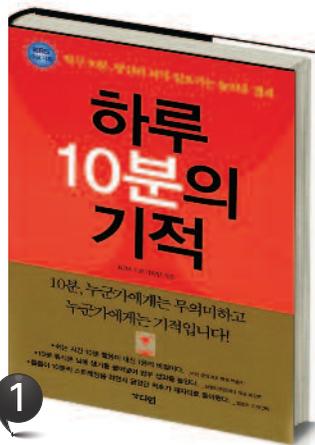
이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우리 영토의 문제를 감성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의 냉정하고 진지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올해 가장 사랑받은 3대 도서

어느덧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원대한 목표를 갖고 연수원을 찾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궁금해지는 시간이다. 연수기간 동안에도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연수생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소홀함이 없는 연수생들의 모습은 항상 긍정적인 자극이 되곤 한다. 이번 호에는 연수생들의 대출 기록을 통해 올해의 베스트셀러 3권을 소개한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다보면 연수생들의 독서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연수생들의 독서 행태는 교육과정의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전문과정 연수생들은 교육과정이 3~5일인 특성상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소설류, 무협지 등을 많이 찾았으며 장기과정 연수생들은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단기과정 연수생들보다는 심오한 책들을 읽는데 철학, 자기계발서, 전문서적 위주로 도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사랑받은 책은 어떤 책일까? 올해의 최다 대출도서 세 권의 면면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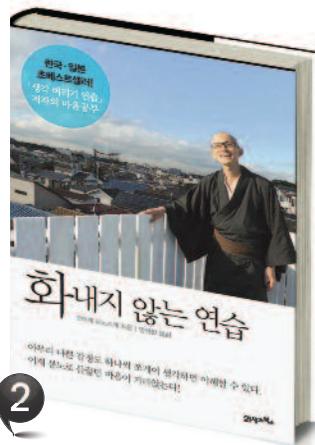


1

‘집중하는 뇌’로 리셋하라

하루 10분의 기적 KBS 수요기획팀 / 가디언

올해의 최다 대출 도서 1위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싶어 하는 연수생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하루 10분의 기적》이 선정되었다. 학창시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아니 지금도 야근은 자주 하는데 동료보다 상사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 속상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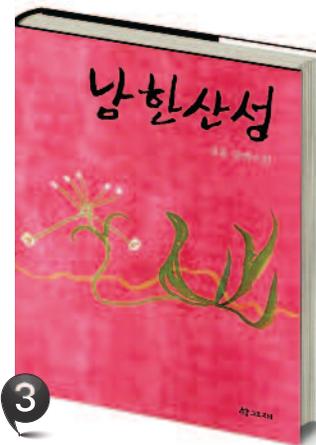


2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화내지 않는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 21세기북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치미는데 하물며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내지 않는다면 바보 아니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 성인(Saint)일 것이다. 분노보다 이해로 마음을 다스리며 긍정적인 기운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코이케 류노스케의 《화내지 않는 연습》.



3

작가 김훈이 특유의 냉혹하고 뜨거운 언어로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

남한산성 김훈 / 학교재

‘죽어서도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어느 책에 나오는 내용일까? 답은 김훈의 《남한산성》이다. 처음 등단했을 때부터 ‘한국문학에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필력이 돋보이는 작가, 김훈이 그려내는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빠져들어 보자.

이상으로 올해 우리 도서관에서 최다 대출된 3대 도서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여러분 모두가 남은 연수기간 마무리 잘 하고 현장에 복귀하여, 연수원에서 취득한 지식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길 기대해본다. ☺



2011년 교육운영 성과

새해 첫 날 가슴에 품었던 큰 꿈, 원대한 뜻, 그리고 수많은 계획과 다짐들을 떠올려봅니다.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개발센터를 꿈꾸는 지방행정연수원의 2011년은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착실히 나아간 한 해였습니다. 1년간 총 168과정 944회의 강의를 통해 약 17만 명의 지방 공무원들과 함께한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지방행정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따마 열정의 기록을 돌아봅니다.



○ 총괄 : 168과정 944회 / 17만 3,245명



집합교육

83과정 119회 7,245명 (집합교육 연인원 125,335명)



사이버

85과정 825회 16만 6,000명

(2011.11.30 기준)

구분	교육대상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연초계획	2011년 예상실적*	
합계		122과정 349회 79,102명	137과정 836회 129,883명	149과정 889회 156,230명	168과정 944회 173,245명	
집 합 교 육	소계	72과정 172회 12,211명 / (연)127,527명	76과정 157회 8,515명 / (연)125,923명	79과정 119회 6,230명 / (연)118,173명	83과정 119회 7,245명 / (연)125,335명	
	장기	고위정책(3·4급) 고급리더(4급) 중견리더(5급) 여성리더(6급)	4과정 5회 391명 (연)57,551명	4과정 5회 409명 (연)58,225명	4과정 4회 260명 (연)55,120명	4과정 4회 258명 (연)54,696명
	기본	지방5급 승진후보자	1과정 7회 1,782명 / (연)44,550명	1과정 7회 1,567명 / (연)47,010명	1과정 6회 1,500명 / (연)45,000명	1과정 6회 1,829명 / (연)51,900명
	전문	지방공무원	41과정 52회 3,176명 / (연)11,004명	43과정 57회 2,417명 / (연)9,075명	45과정 57회 2,550명 / (연)9,170명	44과정 54회 2,538명 / (연)9,695명
	시책	국정과제교육	4과정 10회 724명 / (연)2,032명	5과정 14회 567명 / (연)1,698명	6과정 14회 570명 / (연)1,790명	7과정 14회 637명 / (연)2,002명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	1과정 69회 2,738명 / (연)5,476명	1과정 42회 1,703명 / (연)3,406명	1과정 7회 280명 / (연)560명	1과정 8회 326명 / (연)652명
		특별시책교육	3과정 8회 2,779명 / (연)2,779명	1과정 1회 375명 / (연)375명	-	1과정 2회 726명 / (연)726명
	선출직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역 거버넌스	2과정 3회 95명 / (연)190명	3과정 8회 717명 / (연)717명	3과정 7회 220명 / (연)440명	3과정 5회 132명 / (연)264명
	지방 공기업	공사·공단 CEO 및 임직원	5과정 7회 312명 / (연)1,716명	7과정 12회 453명 / (연)2,390명	8과정 13회 510명 / (연)2,850명	9과정 13회 434명 / (연)2,068명
	외국인	개도국 공무원	11과정 11회 214명 / (연)2,229명	11과정 11회 307명 / (연)2,995명	11과정 11회 340명 / (연)3,243명	13과정 13회 365명 / (연)3,332명
	사이버 교육	중앙·지방공무원	50과정 177회 66,891명	61과정 679회 121,368명	70과정 770회 150,000명	85과정 825회 166,000명

*2011년 예상실적 : 11월까지의 교육 실적 + 12월 예상실적

꿈을 나르는 배, 달을 내리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TE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TED 강연을 보다가 평소 좋아하는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의 강연을 발견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해 가르칩시다'에 대한 강연을 들어봅니다. 그의 강연에 감동을 받아 그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매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지식 공유와 소셜 러닝이 제 삶에 일으킨 작은 반향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가진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셜 러닝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우리'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근 충청북도 청주시(제31기 고급리더과정)

1년 동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동기생들과 함께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한해를 정리하는 이 계절에 지방행정연수원 소식지 표지 모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연수원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연수원에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훌륭한 강의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그 동안 함께 했던 동기생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지방행정연수원 소식지, 《꿈을 나르는 배》를 웹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은별 주무관 지방행정연수원 인력개발과(여성리더양성과정 담당)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제가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한 뜻 깊은 곳입니다. 여성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곳에서 공직생활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 제게는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수원에서의 생활은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방행정연수원 소식지 《꿈을 나르는 배》의 표지 모델이 된 경험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새주소가 태어났습니다

주소만으로 목적지를 쉽게 찾는 대한민국,
새주소가 만들어갑니다!

평창1길 2→60
Pyeongchang 1-gil



새주소 홍보대사
신동엽

신동엽

새주소란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검색창에 **새주소**를 쳐보세요!



행정안전부

Dreams@Logodi
꿈을나르는배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
지방행정연수원이
함께 합니다



440-7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Tel.031-250-5243

SNS

 twitter.com/happylogodi

 facebook.com/logodi (지방행정연수원)